

림춘의 창작과 의인전기체 산문

리성*

【국문초록】

림춘은 12세기 후반기 진보적 문학류파였던 '해좌칠현'의 대표적 작가의 한 사람으로 당대 현실의 모순을 폭로비판한 우수한 시들을 많이 창작하였으며 특히 의인전기체 산문창작의 선구자로서 조선문학사에 자기의 자취를 남겼다. 림춘이 새롭게 탐구한 의인전기체는 선행시기에 이룩된 전기와 우화의 창조경험에 의거하고 그것을 당대의 변천된 사회역사적 현실과 새로운 사상미학적 요구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 독특한 예술적 산문형태였다.

림춘의 의인전기체 산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첫째로, 문학의 사회적 성격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의인화수법을 당대의 사회미학적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주인공의 성격형상에서 풍부한 예술적 경험을 마련해놓은 것이다. 세 번째로 의인화 형상에 기초한 독특한 전기식 구성을 창조한 것이다. 이처럼 림춘의 의인전기체 작품들의 구성상 특징은 그것이 의인화된 사물과 실재인물간의 관계에 토대하여 주인공의 운명성을 일인일대기식으로 전개함으로써 실재인물의 실재사적을 그리던 인물전기와 구별되는 의인화된 주인공의 가상적인 '전기'라는 새롭고 특색 있는 구성형식이라는데 있다. 림춘은 또한 주인공을 둘러싼 긍정·부정인물집단의 대립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주제사상 천명에 효과적으로 복종시키는 등 갈등 조성 과 해결에서도 일련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주인공의 성격을 뚜렷이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어 주고 그에 기초하여 갈등을 예술적으로 깊이 있게 풀어나가려고 시도한 구성수법은 개별인물간의 단순한 인간관계로 갈등을 선정하고 풀어나가던 종래의 구성수법에서 벗어난 점에서 혁신적인 의의를 가진다. 이밖에도 초

*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상, 행동묘사 등을 뒷받침하여 주인공의 성격을 부각시키고 형상의 진실성을 보장한 것 등에서도 뛰어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주제어 임춘, 의인전기체, 사회역사적 현실, 사상미학적 요구

위대한 령도자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다.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작가나 작곡가, 화가도 있고 인류문화의 보물고에 기여한 명작도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그래야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줄 수 있고 민족문화예술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옹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다.”(『김정일선집』12권, 391 ~ 392 페이지)

림춘(?-1196)은 12세기 후반기 진보적 문학류파였던 《해좌칠현》의 대표적 작가의 한사람이다.

그는 문신정변을 전후한 침예한 사회력사적 환경 속에서 활동하면서 예리한 비판적 안목과 독특한 창작적 개성으로 당대 현실의 모순을 폭로 비판한 우수한 시들을 많이 창작하였으며 특히 의인전기체 산문창작의 선구자로서 조선문학사에 자기의 자취를 남겼다.

1150년대 초 개경에서 상서 림광비의 아들로 태어난 림춘은 어려서부터 큰아버지 림종비의 영향하에 학문을 연마하였고 청년시절에 벌써 문장가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대 바른 성품을 지닌 것으로 하여 집권파 량반들의 미움을 받고 여러 차례 과거시험에서 낙선했다.

림춘의 본격적인 창작활동은 1170년 무신정변 이후부터 시작되었는데 크게 은거생활시기와 개경에서의 생활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정중부, 리의민 등 무인관료들은 의종왕의 보현사 행차를 기회로 류혈적인 정변을 일으킨 다음 문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살육을 감행하였다.

당시 무인들에게 온 가족을 잃은 림춘은 10여 년 간 경상도 상주에 피신해있으면서 악착한 무인통치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이것은 그의 창작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은거생활기간 림춘은 무인통치배들의 폭압정치로 하여 애써 키운 재능을 펴보지 못한 채 속절없이 묻혀 지내야 하는 울분과 안정된 생활에 대한 낭만적 지향을 토로한 시들을 주로 창작하였다.

그러한 대표작들로서는 시 「장단을 지나며」, 「겨울날 길가에서」, 「장검행」, 「늦은 봄 피꽃새의 소리를 들으며」, 「반송의 노래」, 「어부」 등을 들 수 있다.

림춘의 창작활동의 둘째 단계는 그가 개경에 돌아온 후 사망할 때까지의 약 15년간이다.

1180년경 림춘은 무신정권이 표방한 문인등용정책에 기대를 걸고 다시 개경에 올라왔으나 편협하기 그지없는 통치관료들의 처사로 끝내 등용되지 못하였으며 리인로, 오세재 등과 '해좌칠현'을 형성하고 창작활동을 벌리다가 사망하였다.

개경에서의 생활과정에 림춘은 부정부패가 란무하는 정계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자신의 불행이 단순히 개별적인 무인관료들의 편견 때문이 아니라 재물과 권세에 따라 인격을 저울질하는 봉건정계의 씩어빠진 풍조에 기인된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이 시기 림춘은 시가 위주를 이루던 은거생활 시기와 달리 시와 산문의 양면에 걸쳐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을 창작하였으며 예리한 사회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생동하고 예술적 형상으로 깊이 있게 해명함으로써 창작에서 보다 원숙한 경지를 보여주었다.

후반기 그의 시작품을 레컨대 「다시 도읍에 이르러」, 「후원 벽에 쓰노라」, 「리미수와 함께 리담지의 집에서」, 「벗에게」, 「병중에 느낀바 있어」

등에서는 량심적인 문인들의 전도를 가로막고 인생을 도탄에 몰아가는 당대의 불합리한 사회적 모순에 대한 분노와 혐오감을 짙게 표현한 것이 특징적이다.

림춘은 이 시기 전기, 려행기, 수필 등 산문창작에 관심을 돌려 의인전기체 작품인 「공방전」, 「국순전」과 함께 금강산의 천하절경을 찬양한 「동행기」, 고려 숙종 때 이름난 문인이었던 리중약의 생애를 그린 「일재기」 등을 내놓았다.

림춘은 창작활동기간 도식적이고 모방주의적인 문풍을 배격하고 구체적인 사물현상에 의탁하여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며 작가의 개성을 살리는 것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비교적 선진적인 미학적 견해들을 제기함으로써 당시의 진보적 문예비평발전에도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작가 립춘의 문학사적 공적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의인전기체 산문의 선구적 작품들인 「공방전」과 「국순전」의 창작이다.

림춘이 새롭게 탐구한 의인전기체는 선행시기에 이룩된 전기와 우화의 창조경험에 의거하고 그것을 당대의 변천된 사회력사적 현실과 새로운 사상 미학적 요구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 독특한 예술적 산문형태였다.

림춘의 의인전기체 산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첫째로, 절박한 사회정치적 문제들을 기본주제로 설정하고 무인통치사회의 부정면을 신랄하게 폭로 비판함으로써 문학의 사회적 성격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공방전」, 「국순전」은 돈과 술을 의인화하여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무인통치하의 어지러운 정계현실을 재현한 작품들이다.

림춘은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당시 고려봉건사회의 혼란을 초래시키는 원인이 무인통치배들의 전횡과 무제한한 탐욕, 봉건군주의 무능성에 있다고 보았으며 그 폭로단죄를 작품의 주된 형상과제로 내세웠다.

「공방전」에서는 의인화된 공방일가의 운명을 통하여 부귀출세에 환장하여

인재등용제도와 법질서를 혼란시킨 무인통치배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발가내였으며 「국순전」 역시 국순일가의 흥망을 보여주면서 통치배들의 방탕한 생활풍조와 그릇된 인재등용으로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림춘은 특히 전형적인 간신들과 함께 최고통치자인 봉건군주에게도 직접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사회적 혼란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현실비판의 강도를 보다 날카롭게 보장하였다.

물론 봉건군주의 부정적 성격은 이전 시기 작품들에도 적지 않게 형상화되었지만 대개 생활세대적인 소재를 통하여 부패하거나 포악한 정신도덕적 일면만을 폭로한데 그치고 사회현실과 결부하여 폭넓게 그려지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림춘의 작품들에서의 봉건군주는 충신과 간신도 가려볼 줄 모르는 암둔하고 나약한 성격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야심가들의 간계에 놀아나면서 충직한 신하들을 배척하고 나중에는 나라의 운명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장본인으로 타매되었다.

림춘은 이처럼 당대사회의 질곡으로 되어있던 예민한 정치적 문제들을 대담하게 전면에 제기하고 진실하게 밝혀냄으로써 중체산문문학을 현실에 더욱 접근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림춘의 의인전기체 산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둘째로, 선행시기에 리용된 의인화수법을 당대의 사회미학적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주인공의 성격형상에서 풍부한 예술적 경험을 마련해놓은 것이다.

우리 문학사에 의인화된 주인공이 등장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였으나 림춘 이전의 작품들에서 의인화 대상은 흔히 동물이나 식물세계의 범위에서 사람들의 미학적 표상이나 관습을 기준으로 선택되곤 하였다.

림춘은 이러한 전례에서 벗어나 인간생활과 밀접히 결부된 사물을 의인화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사물의 고유한 속성과 인간주인공의 본질적 성

격간의 일치를 중시하였다.

「공방전」의 공방(돈)이나 「국순전」의 국순(술)은 그 성질이나 사회적 리용가치에 있어서 작가가 형상하려는 인간성격과 류사한 사물들이다.

실례로 「공방전」에서 립춘은 돈이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빌어 나라와 백성이야 어떻게 되든 사리사욕만 추구하며 매관매직을 비롯한 엄중한 비행도 서슴지 않는 추악한 정신적 기형아-탐관오리의 정체를 생동하게 드러내 보였다. 그런가 하면 「국순전」에서는 '그 풍미가 각별하여 생활의 한때를 사로잡는' 술의 유용성과 지나친 과음이 사람의 건강을 손상시키는 해독성에 대한 비유적 형상으로 향락에 도취하여 일신을 망치고 나가서는 정계를 수라장으로 만들어놓은 봉건통치배들의 부화타락한 생활 풍조를 비판하였다.

보는 것처럼 립춘의 작품들은 인간생활에 널리 쓰이면서도 문제성이 뚜렷한 사물들을 기발하게 선택하고 의인화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당시 무인통치배들의 탐욕성과 부화방탕한 생활습성,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심각성을 형상적으로 쉽게 감득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동식물에 국한하여 의인화대상을 선택하던 종래 의인화수법에 비해 훨씬 높은 형상적 감화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견지에서 놓고 볼 때 립춘이 탐구한 사물의인화수법은 의인화 형상창조에서 하나의 발전으로, 진일보로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립춘의 의인전기체 산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셋째로, 의인화형상에 기초한 독특한 전기식 구성을 창조한 것이다.

의인전기체 작품의 형상적 매력은 사실상 지난 시기 제각기 리용되어 오던 의인화 형상수법과 인물전기식 구성수법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데서 생긴 특유한 미학정서적 감화력이다.

「공방전」과 「국순전」이라는 제목 자체가 보여주듯이 립춘은 작품들에서

의인화된 주인공의 운명선을 인물전기식 구성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이채로운 것은 의인화된 주인공과 실재한 역사적 인물사이
에 인간관계를 설정한 것이다.

이전시기에 창작된 중세 산문 작품들을 고찰해보면 죽은 사람과 산 사람,
귀신과 사람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사건을 전개하던 수이전이나 기타 산문형
식들이 존재하였지만 림춘의 의인전기체 작품에서처럼 사물과 실재인물의
호상관계를 설정하고 의인화된 주인공(사물)이 산 사람과 자유롭게 교제하
는 생활화폭을 창조한례는 없었다.

이것은 돈이나 술이 력대로 인간생활의 중요부분을 차지해왔다는 전제
밑에 당대 현실의 문란상과 그에 대한 비판을 생활적으로 실감 있게 반영하
려는 작가의 창작적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처럼 림춘의 의인전기체 작품들의 구성상 특징은 그것이 의인화된 사물
과 실재인물간의 관계에 토대하여 주인공의 운명성을 일인일대기식으로 전
개함으로써 실재인물의 실재사적을 그리던 인물전기와 구별되는 의인화된
주인공의 가상적인 '전기'라는 새롭고 특색 있는 구성형식이라는데 있다.

바로 여기에 작가 림춘의 남다른 예술적재능이 있고 우리나라 중세 산문
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한 탐구의 몫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림춘은 또한 주인공을 둘러싼 긍·부정 인물집단의 대립을 선명하게 부
각시키고 주제사상천명에 효과적으로 복종시키는 등 갈등조성과 해결에서
도 일련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공방전」과 「국순전」은 군주를 비롯한 통치배들의 그릇된 인재등용정책
을 비판하고 탐오한 악질관료들을 철저히 징계하는 것을 주된 사상적 지향
으로 제기한데로부터 간신형의 부정인물로 주인공을 내세우고 그에 동조하
는 암매한 임금, 탐관오리, 수전노, 주정뱅이 등과 그를 타매하는 충신들간
의 대립으로써 갈등을 설정하였다.

이처럼 주인공의 성격을 뚜렷이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어 주고 그에 기초하여 갈등을 예술적으로 깊이 있게 풀어나가려고 시도한 구성수법은 개별인물간의 단순한 인간관계로 갈등을 선정하고 풀어나가던 종래 구성수법에서 벗어난 점에서 혁신적 의의를 가진다.

림춘의 의인전기체 산문이 보여준 우수한 특징은 이밖에도 초상, 행동묘사 등을 안받침하여 주인공의 성격을 부각시키고 형상의 진실성을 보장한 것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림춘이 의인전기체 산문창작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은 고려중엽이후 중세 산문 발전의 귀중한 밑천으로 되었다.

이것은 림춘의 독특한 형상수법을 본받아 종이, 대나무, 지팡이 등 인간생활에 밀착된 의인화대상들을 선택하고 주인공의 일대기형식을 취한 리침의 「저생전」, 식영암의 「정시자전」, 리곡의 「죽부인전」, 리규보의 「청강사자현부전」, 리윤보의 「무장공자전」 등이 련이어 창작 되어 하나의 의인전기체 산문 계열을 이룬데서 여실히 찾아볼 수 있다.

물론 림춘의 의인전기체 산문은 당대 사회의 폐단이 개별적인 악질관료들의 그릇된 행위와 관련된 듯이 묘사하는 등 일부 부족한 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사회 비판적 성격이 보다 뚜렷하고 의인화수법과 전기적 구성을 재치 있게 결합시킨 독특한 예술적 형상을 창조한 것으로 하여 고려시기 가장 우수한 산문작품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당시와 후기 소설문학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Abstract

Im Chun's Writings and Uiin Chôngi-che

Yi, Sông

Im, Chun was a member in the group of Haejwa Chilhyôn and a progressive writer in the 12th century Korea. Many of his poems criticized the contradiction in the reality. Uiin Chôngi-che (Fables literature in the form of Biographical writing), he explored, relied on the writings in the past and met the demand of readers at that time who expected to observe the intermingled crystal of thoughts and arts. His Uiin Chôngi-che embodied the social function of literature, and constructed the unique plot in biographical writing by relating and contrasting the real man and the thing personified.

Key Word

Im Chun, Uiin Chôngi-che, Historical Reality, Demand to combine Arts and Progressive thoughts